

	한국사	I.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13 조선-1 조선의 성립과 통치체제의 정비	학번	
	임종일 T		이름	

★ 여말선초 (고려말, 조선초)

중국) 원명 교체기

-한족 반란군 (홍건적의 난)이 일어남.

일본) 막부의 통제력 약화 - 왜구가 기승을 부림

고려) 권문세족과 불교사원이 농장 확대 - 백성 수탈

→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세력의 만남

★조선을 건국하다

-새로 건국한 명이 철령 이북의 땅을 요구

-> 고려는 요동 정벌을 추진

-요동정벌을 반대하던 이성계, **4불가소**를 내세우며 **위화도회군**-권력을 장악한 이성계, 신진사대부 - **과전법** 시행 (1391)
(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)

-신진사대부의 분열 - 온건개혁파(정몽주), 급진개혁파(정도전, 조준)

-이성계, **조선건국 (1392)** - 국호 : 조선, 도읍 : 한양

★국가의 기틀을 만들다

조선 : 민본사상 & 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통치체제 정비
정도전, 조선경국전 편찬 -종합적 통치규범을 제시

“재상 중심의 정치” 주장

태종 이방원, 왕자의 난을 통해 정권을 잡고, 정도전 제거.

- 6조 직계제 시행 [왕 중심으로 통치체제 정비]

세종 - 의정부서사제 실시 - [왕권과 신권의 조화]

집현전 설치, 훈민정음 창제 - 유교정치의 실현을 하기로 함.

성종 - 경국대전 완성 / 성문법전에 바탕을 둔 조선 통치체제 확립

★통치체제 정비

조선 -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면서도 권력의 독점을 막는 통치체제 마련

중앙

-합의제를 기본으로 하는 의정부와 6조 중심으로 운영

-사간원, 사헌부, 홍문관의 3사를 두어 정사를 비판, 감찰

-과거, 천거, 음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선발

(문과를 가장 중요시, 무과도 정기적으로 실시)

-천거와 음서는 고려에 비해 대상과 범위 축소.

지방

-전국을 8도로 나눔. 밑에 부, 목, 군, 현을 둠

도에는 관찰사 파견, 모든 군현에 지방관 파견

-수령의 권한 강화 / 지방의 행정, 사법, 군사 담당

-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로 격하

-지방 **사족**은 향촌 자치 조직인 유향소를 운영

- 수령보좌, 백성교화, 향리감찰

cf.

나말여초

- 6두품 + 호족 + 선종 + 풍수지리

여말선초

- 신진사대부 + 신흥무인세력 + 성리학

★4불가소

1. 큰나라가 작은나라를 거역하는 것
2. 농번기인 여름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
3. 요동을 공격하면 왜에게 틈을 주는 것
4. 장마철이라 활은 아교가 풀어지고 군사들에게 전염병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

경국대전

책이 완성되니 여섯 권으로 만들어 바치니, '경국대전'이라는 이름을 내리셨다. 형전과 호전은 이미 반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네 법전은 미처 교정을 마치지 못했는데, 세조께서 갑자기 승하하시니 지금 임금께서 선대 왕의 뜻을 받들어 마침내 하던 일을 마치고 나라안에 반포하셨다.

고려는 무과 시행 X

고려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 파견 X